

## 발달장애인 일상에 행복을 그리다



조미숙 서울시립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무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와 사회 참여, 자립을 위해 39년간 많은 노력을 해왔다.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공원 안에 있는 서울시립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강당에서는 전통음악 놀이 한마당이 펼쳐지고, 텃밭에는 식물 심기가 한창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복지관과 발달장애인의 긴 움츠림도 막 가지개를 졌다.

“이번 주부터 집단으로 함께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터전이었던 복지관이 이제 야활기가 생기고 제 기능을 다 하는 것 같아 무척 기쁩니다.”

사무국장인 조미숙 씨는 1986년 12월 문을 연 서울시립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관의 실무를 맡은 장본인이다. 1983년 한국지적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무직으로 입사해 복지관 사회재활팀장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39년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에 희망과 기쁨을 불어넣어 왔다. 조미숙 씨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아산상 복지실천상을 수상했다.

“복지관을 개관할 당시에 잊히지 않습니다. 오랜 바람이었던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생기니 마치 우리의 꿈이 실현된 것 같은 설렘과 기쁨이 있었거든요. 이 공간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발달장애인과 함께한 39년

협회 사무직을 담당하며 발달장애인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던 조미숙 씨는 1991년 이들을 위한 복지를 직접 발로 뛰며 실행하기 위해 복지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며 전문성도 키워나갔다.

복지관 사회재활팀장을 맡을 당시, 조미숙 씨는 발달장애인이 집 밖을 나와 지역 사회에서 일상을 함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기획했다. 복지관 초창기에는 발달장애아동 대상의 프

로그램이 주를 이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청소년, 성인기에 이른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꾸리고 운영했다.

2005년부터는 발달장애청소년이 주말 시간을 의미 있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체험이 있는 주말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들여다본 조미숙 씨가 특히 주말에 더 커지는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알기에 직원들과 화합하여 진행한 것이다. 이는 선도적인 주말 프로그램으로 평가받아 타 기관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오랜 기간 발달장애인과 함께해 온 조미숙 씨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삶에도 주목했다.

“유아·청소년기에는 재활 치료와 특수교육 등이 집중적으로 이뤄지지만, 성인기에 접어들면 각종 지원이 끊기고 가족의 에너지도 소진되면서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평생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미숙 씨는 장애의 정도, 나이에 따라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이 직업개발 훈련을 통해 자립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성인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해 꾸준히 사회적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도록 힘써왔다.

### 진심으로 묻고, 듣고, 실행하다

조미숙 씨는 2010년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취업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의 주 취업 분야였던 단순 제조업을 벗어나,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어린이집 보조교사 일자리를 지역 사회에서 실현한 것이다.

“장애가 있든 없든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지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에게도 본인의 꿈과 생각을 먼저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 하고 싶은 일을 묻자, 아이들을 좋아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가 되고 싶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조미숙 씨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동작구청과 구의회에 여성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안서를 쓰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재원을 마련한 것이다.

처음에는 보조를 받아야 할 장애인이 누구를 보조하느냐며 반대했던 이들도 조미숙 씨가 “발달장애인도 일자리를 갖고 일하면서 지역 주민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끈질기게 설득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현재 동작구 내 15개 어린이집에는 꿈을 이룬 여성 발달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다.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도 여러 명이다. 보조교사에 이어 요양병원에도 25명의 요양보호사 보조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또

발달장애인 바리스타를 고용하는 카페를 운영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조미숙 씨의 노력은 현재 진행 중이다.


### 서로에게 의미 있는 기쁨을 위해

조미숙 씨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 사회와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길 바란다. 조미숙 씨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의미 있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존재만으로 기쁘다는 것보다, 서로 만나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 더 의미 있고 행복한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장애인을 만난다면 여러분이 함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하는 것, 대화를 나누는 것, 여유가 되면 차를 한 잔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것 등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느슨한 연대’가 점점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조미숙 씨는 요즘 발달장애인 고립 가구를 찾아내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사회적 단절을 겪고 있거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와 고립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찾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발달장애로 인해 본인이나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고독사를 겪는 일이 없도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고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복지관은 올 8월부터 별관 증축을 위한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미숙 씨는 더 여유로운 공간에서 발달장애인과 함께할 더 많은 행복을 그린다.  글 박한나



발달장애인과 조미숙 사무국장이 함께 텃밭을 가꾸는 모습.